

홍문표 aT 사장 “식량안보 확립·식품영토 확장 주력”

언론설명회 개최... 정책방향 공유
기후 적응형 신식품 육성 지원
온라인 시장 등 직거래 활성화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올해 정책 추진방향을 밝히고 있다. /aT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덴마크 등 북구 지역의 사례를 들고, 농업·농촌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5일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2025년도 aT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aT가 향후 국가·농어민을 위해 한국 식품영토를 확장하는데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T는 올해 수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 사장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나라를 들여다보면 복지의 중심이 농촌과 농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몇 대 더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생명(식품)"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가 (먹거리 확보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인식 못 하는 게 안타깝다"며 "식량안보 확립 및 식품영토 확장을 통해 비로소 스칸디나비아반

도 국가들과 같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농수산식품의 수출확대가 곧 대한민국의 수출영토 확장으로 직결된다는 게 홍 사장의 지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식품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유통구조 간소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홍 사장은 "농촌진흥청이 신식품종을 개발하고 우리가 (판로 확보 등을) 도울 것"이라며 배추·딸기 등의 품목에서 7~8월께 새 품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aT는 포도(글로리스타), 파프리카(미니·벨), 딸기(골드베리), 배(신화) 등의 기후 적응형 신식품종의 육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유통구조 개혁을 통해 현행 4~5단계를 2~3단계로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고 온라인을 통한 농수산물 직거래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홍 사장은 "딸기 하나 팔려면 유통비에 휘발웃값에 이런 저농민이 전부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aT는 농식품부와 함께 온라인도 매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자체 주도 온라인직거래장터의 신설도 장려하고 있다.

aT는 올해 농산물의 비축 능력 강화도 추진한다. 강원권에 신규 저온비축

기지 건립을 추진하고, 기존 노후화된 비축기지는 전라·경상·충청 3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주요 채소류 및 곡물의 장기 보관이 가능해져 수급안정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aT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식량이 무기화되는 시대에 발맞춰 밀·콩 등 주요 전략작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수매·공공비축을 확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정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펼친다.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계청·기상청 등 20여 개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선제적 수급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선농식품에 특화된 물류 체계 확립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 신규 공동물류센터를 지정해 콜드체인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산업부, 탄소중립 선도 기업 1000억 금융 지원

내달 14일까지 대상기업 모집
최대 10년간 1%대 저리 융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000억원 규모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원(연구개발 자금은 100억원)까지 최대 10년간(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1%대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5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규모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탄소 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3월 기준 적용 금리는 중소·중견기업은 1.43%, 대기업은 1.93%이다.

지난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업종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산업 프로젝트에 선정·평가 시 가점(2점)

을 부여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판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도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탄소중립 융자지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 관련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3월11일), 대구(3월12일), 광주(3월18일), 창원(3월19일) 등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가 열리고 금융·보증 등 상담 창구도 운영된다.

한편, 산업부는 2022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저탄소설비 도입 등 총 72건의 프로젝트에 5329억원의 저리 융자금을 지원, 총 2조3037억원 규모의 탄소감축 분야 국내 투자를 이끌어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

농어촌공사, 2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데이터 개발·활용 항목 고평가

한국농어촌공사가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기반 행정 ▲인프라 3개 분야를 평가하여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공공데이터 제공평가'에서 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데이터 이용자 인터뷰를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반영하여 만족도를 향상한 점을 비롯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

성해 기획재정부 데이터 협업과제에 선정된 점 등을 인정받았다.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는 데이터 분석·활용과 공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행정안전부 데이터 분석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AI) 기반 저수지 수위변화 예측 및 수문조작 의사결정 지원 모델'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홍수 위험을 사전에 전파하고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권병태 디지털혁신처장은 "2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은 국민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공사 업무 전반에 데이터기반행정이 자리 잡도록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정위,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승인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미미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 진출을 위해 추진한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을 경쟁당국이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DRAM, NAND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 제조사로, 소형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삼성SDI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다양한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 제조사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 제어와 구동 등을 위해 DRAM, NAND 플래시 등 반도체를 활용하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므로 각 시장 간 수직결합시 경쟁제한 여

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공정위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 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가 타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고, 공급 중단이나 공급가 인상 유인도 적다고 보고,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세종=한용수기자

동서발전, 5년 평균 97.27점 '우수'

한국동서발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5년 평균 97.27점(공기업 5년 평균 78.04점)을 기록하며 최고등급을 5년간 유지했으며,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는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품력 발전량 예측 공모전 시행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국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 제공 ▲데이터 활용 전자책 자료 제공 및 소통 채널 상시 운영 등 국민 눈높이 맞춤형 데이터 제공을 통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 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 작년 사교육비 39.2조 역대 최고... "강력 대책 강구해야"
-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까지 조기 지급



- ▲ 홀덤펍인 줄 알았는데 불법 도박장... 3개 업소 적발
- ▲ 환경부, 3월의 생태관광지로 '제주 평대리' 선정

사진 뉴스

- ▲ 최면진정제·항불안제 5250알 '셀프 처방'...의사 등 적발
- ▲ 새마을금고 횡령·배임 5년간 400억 넘어... 작년에만 29억